



간접흡연, 자궁경부암 위험 높여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은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의 앤서니 앨버그 박사가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노출된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은 1963년 표본군에서 2.1배로 나타났고 1975년 표본군에서는 1.4배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담배를 피운 여성은 각각 2.6배와 1.7배로 나타났습니다.

앨버그 박사는 1963년과 1975년에 각각 2만 5천 명 가량의 여성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흡연을 했거나 흡연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15년 간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비교분석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앨버그 박사는 그러나 시기적으로 12년 차이가 나는 두 통계군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버그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의학전문지 '산부인과학'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

(YTN 2005. 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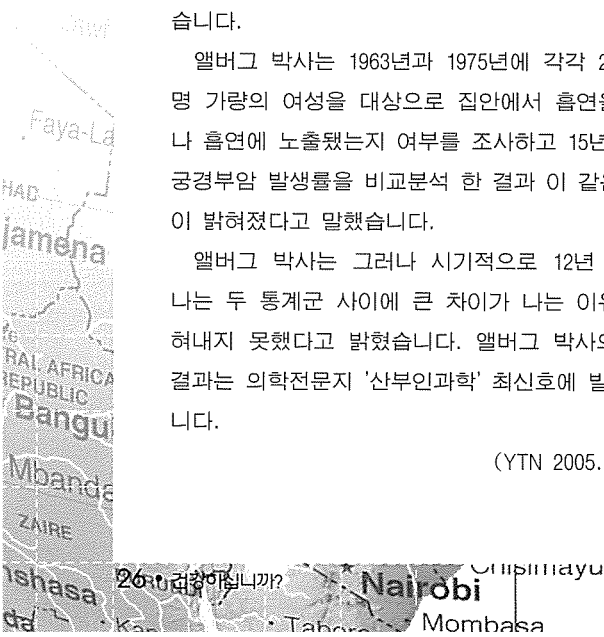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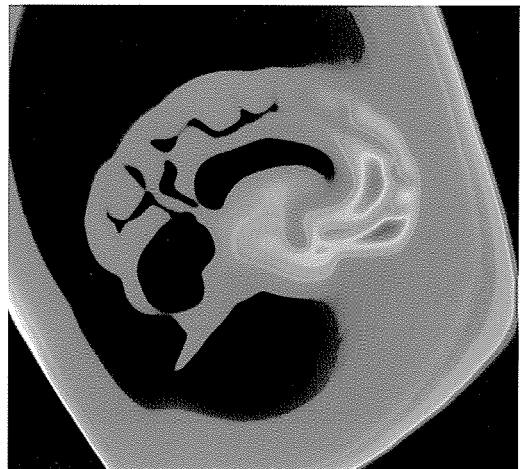
남녀, 지능담당 뇌 구조 달라

남녀는 지능수준은 비슷하나 지능을 담당하는 뇌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처드 하이어 박사는 신경학전문지 '뉴로이미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능과 관계된 부위는 남성은 뇌의 회색질(gray matter)에 많고 여성은 백색질(white matter)에 많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투데이 인터넷판이 21일 보도했다.

회색질은 대뇌반구의 바깥쪽 표면을 싸고있는 곳으로 정보처리 중추이고 백색질은 그 안쪽에 있는 부위로 정보처리 중추와의 연결을 담당하는 곳이다.

하이어 박사는 또 남녀간에는 지능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분포도 달라 남성은 회색질의 지능담당 부위가 뇌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여성은 전두엽에 국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은 수학을 잘 하고 여성은 언어능력이 우수하다든가 하는 남녀간 잘 하는 것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이어 박사는 지적했다.





하이어 박사와 함께 연구에 참여한 뉴멕시코 대학의 렉스 정 박사는 지능담당 뇌 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간 전체적인 지능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지능 테스트 결과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5. 1. 22)

저소득층 암환자에 치료비 지원

올해부터 폐암에 걸린 저소득층 환자는 정부에서 매년 100만원씩 치료비를 받게 된다. 또 17세 이하의 청소년 암 환자는 1,000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아동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투병 중이거나 새로 암에 걸리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이 암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인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소아 백혈병 환자에게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만 6,000명의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모두 2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금은 담배 가격을 올려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고소득층의 1.5배에 달한다”며 “올해 2만 6,00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담배 가격을 추가로 올리면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는 매년 10만명 가량이 암에 걸려 이 중 6만 4,000명 정도가 숨진다. 2020년에는 암 사망자가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5. 1. 20)

중·노년 남성, 골초일수록 자살률 높아

중·노년 남성 흡연자는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8일 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90년과 1993년에 나가노(長野) 등 8개 현에 사는 40-69세 남성 4만 5천명을 선별, 2000년까지 생활습관을 위주로 건강상태를 추적 조사했다. 이 기간 자살자는 173명이었다.

173명 가운데 흡연자는 108명으로, 하루 20개 미만 그룹의 경우 비흡연자와 자살률이 비슷했으나 30-40개 미만 그룹은 20개 미만 그룹에 비해 1.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이상 그룹은 1.7배에 달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흡연과 자살간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으나 니코틴 의존이 우울증 위험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5. 1. 18) ☺

